

陶氏小柴胡湯에 대한 研究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신영일 *

Study on the *Dossisosihotang*

Sheen Yeong-il *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Objectives : 28 prescriptions with the name 'Dossi' can be found in *Yixuerumen*, and all these prescriptions are highly useful due to their clinical effectiveness. Among them, Dossisosihotang has an important role as the essential prescription utilizing harmonizing and releasing formula.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ponder upon this prescription.

Methods : Dossisosihotang's origin and effectiveness were studied, and the findings served as the basis for analyzing the varied forms of this prescription which came about in the later generations in order to consider more detailed usage of this prescription.

Results & Conclusions : Dossisosihotang directs its patient to consume sosihotang added with chenpi, shaoyao, chuanxiong, then simmered, and added with three spoons worth of raw wormwood juice. Its origin can be traced back to shachechuifa's 'Sihossanghaeeum,' and it is mainly effective for treating the blood aspect syndrome of lesser yang disease such as women's cold damage and heat entering the blood chamber. In treating the symptom of half-exterior and half-interior, taohua developed prescriptions depending on the syndrome, such as Sihijigyungtang, Sihohamhyoungtang, Samhosambactang, Siryungtang, Sihosamultang, Sigalhaegitang, and Samhoseoggotang. These prescriptions became widely known for their clinical efficacy, leading to many later generations of clinical doctors to use them.

Key Words : *Shanghanlun*, Dossisosihotang, Sihossanghaeeum, Harmonizing and releasing, Dohwa

I. 서 론

* Corresponding Author : Sheen Yeong-il.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185
Geonjaero, Naju City, Jeonnam, ROK.
Tel : +82-61-330-3511
Email : 010101@korea.com
Received(8 May 2017), Revised(12 May 2017),
Accepted(16 May 2017)

李梴은 『醫學入門』自序에서 “古今의 方論을 익히 읽고 要點을 論하고 文言을 묶어서 숨은 뜻을 밝히고 類別로 편찬하여 읽음에 쉽게 깨닫고 臨證應手함에 시험하는 불편이 없도록 하였다.”라 하고 각

각의 분야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요약 편술하여 『醫學入門』을 편찬하였다. 그 중 傷寒과 관련 부분은 陶華의 『傷寒全生集』과 『傷寒六書』의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논술하였는데, 陶華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방한 것들을 모아 立方 의의에 따라 분류하고 仲景을 비롯한 先代 醫家들의 기본방에서 이름을 따고 그 처방명 앞에 ‘陶氏’라는 이름을 붙여 구별하였다. 『傷寒用藥賦』등에는 이와 같이 ‘陶氏’라는 이름을 붙인 처방이 28개가 나오는데 모두 기본방 못지않게 임상적 효과가 좋아 그 활용가치가 높은 것들이다.

그 중 하나인 陶氏小柴胡湯은 「汗吐下滲和解溫補總方」에 처음 제시한 처방으로, 李梴은 여기에서 和解法의 ‘和’에 대해 內熱을 조화롭게 하는 것과 ‘解’에 대해 外邪를 풀어내는 것으로 설명하였으며²⁾, 대표 처방인 小柴胡湯의 치료범위를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³⁾, 바로 뒤에 ‘陶氏小柴胡湯…治法 加減, 亦同⁴⁾’이라고 하여 본 처방이 和解劑로써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필자는 陶氏小柴胡湯의 淵源을 찾아 구성약물의 특징과 立方 의의를 밝히고 아울러 陶華의 小柴胡湯 運用法을 제시하여 임상에서 和解法 운용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에 착수하였다.

II. 본 론

1. 陶氏小柴胡湯의 淵源과 효용

『醫學入門』에서 “陶氏小柴胡湯은 小柴胡湯에 陳皮 芍藥 川芎을 가하여 달인 후 생썩즙 세 숟가락을 타서 복용하는 것으로 治法과 加減法은 小柴胡湯과 같다.”⁵⁾고 하였는데, 이는 원래 傷寒六書』중의 하나

인 『殺車槌法·秘用三十七方就注三十七槌法』에 있는 ‘柴胡雙解飲’에 川芎을 가미한 것이다. 『殺車槌法』⁶⁾은 陶華가 ‘秘驗方 37數에 37槌法을 붙이고 그 중 20條는 煎法과 病을 제거하는 것과 藥을 만드는 法, 藥毒을 푸는 法을 설명하여 실로 가슴속에 넣고 전하지 않고 있던 妙法⁷⁾을 정리하여 말년에 만든 처방집인데, 여기에 나오는 柴胡雙解飲은 스스로 小柴胡湯의 變方이라 하였고 입방의이나 구성 약물 면에서 陶氏小柴胡湯의 淵源으로 볼 수 있기에 그 처방과 가감법을 제시한다.

柴胡雙解飲 柴胡 黃芩 半夏 甘草 人參 陳皮 芍藥

즉 小柴胡湯 變方이니 本方에 加減法이 있다.

足少陽膽經이 邪氣를 받은 것을 치료하니 귀가 멀고 옆구리가 아프며 寒熱이 왕래하고 嘔證이 있으면서 입이 쓰고 脈이 弦數한 것은 半表半裏에 속하니 마땅히 和解해야 한다. 이 經은 膽이 出入하는 통로가 없으므로 세 가지를禁해야 하니 汗法 下法 吐法을 써서는 안되고, 단지 小柴胡湯 하나만 있을뿐 다른 處方은 없으므로 病에 따라 加減해야 한다.

少陽病에서 小便이 不利한 경우에는 茯苓을 加하고, 嘔證인 경우에는 薑汁 竹茹를 넣어 쓰며, 脇痛에는 靑皮를 加하고, 痰이 많을 때에는 瓜蒌仁 貝母를 加하여 쓴다. 瘧疾처럼 寒熱이 왕래하는 경우에는 桂枝를 加하고, 渴證에는 天花粉 知母를 加하며, 津液이 없어서 이가 마르는 경우에는 石膏를 加하고, 嗽證에는 五味子 金沸草를 加하며, 壞證에는 鱉甲을 加하여 쓴다. 少

1) 李梴, 醫學入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1.
2) 李梴, 醫學入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686. “和其內熱 解其外邪”
3) 李梴은 『醫學入門』에서 小柴胡湯의 치료 범위를 “傷寒五六日 胸滿 心煩喜嘔 身熱心中咳逆 不欲食 或嘔 或不嘔者 一可服 若因渴欲飲水者 不可服, 寒熱往來而心悸者 二可服, 脅下滿硬而痛 耳聾胸痞 小便不利 或渴 或不渴者 三可服, 發潮熱者 四可服, 瘧後發熱者 五可服 要知無熱證者 不可服.”의 다섯 종류로 설명하고 있다. (李梴, 醫學入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p.685-686.)
4) 李梴, 醫學入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687.

5) 李梴, 醫學入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p.687. “陶氏小柴胡湯 卽小柴胡湯 加陳皮 芍藥 川芎 臨熟入生艾汁三匙調服 治法 加減亦同.”
6) 殺車槌法: 殺車는 수레의 제어장치이고, 槌法은 망치로 단번에 두드린다는 뜻으로 殺車槌法은 病의 진행을 단번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7) 陶華, 傷寒六書(殺車槌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14.

陽證에서 일찍이 下法을 쓰지 않았는데도 心下가 飽悶한 것은 結胸이 아니니 表邪가 胸中으로 傳하였으나 아직 腑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므로 비록 滿悶한 證이 나타나나 아직 表에 있으니 단지 小柴胡湯에 枳實 桔梗을 加하여 쓰면 滿證이 사라지고, 효과가 없으면 本方을 小陷胸湯으로 바꿔 枳實 桔梗을 加하여 쓰면 한번 복용함에 豁然하여 효과가 神妙하니 잘 간직하고 俗人과 더불어 말하지 말지이다. 類傷寒證의 虛煩에는 本方에 竹葉 炒粳米를 加하고, 少陽과 陽明이 合病한 경우에는 本方에 葛根 芍藥을 加하여 쓰면 티끌까지 줍듯이 깨끗하다. 婦人의 熱入血室證에는 當歸 紅花를 加하고, 男子의 熱入血室證에는 生地黃을 加하여 쓴다. 나이 많은 婦人의 傷寒에서 表證이 없고 熱이 심한 경우에는 本方에 大黃을 加하여 쓰고 淸한 경우에는 芒硝를 加하여 쓴다. 물 두병에 생강 한쪽 대추 2개를 넣고 달여야 하니 槌法은 생썩죽 세 손가락을 넣고 달여서 溫服하는 것이다.⁸⁾

柴胡雙解飲은 陶華가 少陽病을 치료하는 방제가 小柴胡湯 하나인 것을 고심하여 가감 변방한 것으로 和解劑인 小柴胡湯에 理氣調中 降逆止嘔 燥濕化痰하

는 陳皮⁹⁾와 斂陰和營 通利血脈 緩急止痛 安胎止漏하는 芍藥¹⁰⁾과 溫經止血 調經安胎 散寒止痛하는 艾葉¹¹⁾을 生用함으로써 半表半裏를 和解하면서 血脈을 通利하여 阻滯된 濕痰으로 발생한 내열을 치료하는 처방이다. 복용법 뒤에 특별하게 槌法은 생썩죽 세 손가락을 넣는 것¹²⁾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槌法은 기절한 사람을 두들겨서 살린다는 의미로 藥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때 血分에 울체된 열을 내리는 것이 요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陶氏小柴胡湯은 柴胡雙解飲에 活血行氣 祛風止痛하는 川芎¹²⁾을 가하여 少陽病證에 血熱이 울체된 熱入血室 및 婦人 傷寒 치료에 주안점을 두고 창방하였으며 아울러 더 나은 효능을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陶氏小柴胡湯의 효용면에서 葉桂는 “經水가 때마침 오거나 끊어질 때 邪氣가 血室로 들어간 것은 傷寒論 少陽病에서 이미 상세하게 말하였으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數動¹³⁾은 正傷寒과 다르다. 仲景이 小柴胡湯을 만들어 陷한 熱邪를 끌어내었는데, 人參과 大棗는 胃氣를 돕고 衝脈을 陽明에 예속시켰으니 이는 虛者의 치료에 합당하다. 만약 熱邪가 陷入하여 血과 膿된 것은 마땅히 陶氏小柴胡湯에서 人參 大棗를 빼고 生地黃 桃仁 山查肉 牡丹皮나 犀角 등을 넣어서 치료한다.¹⁴⁾”라고 하였고, 『類證治裁·熱入血室論治』에서는 “經水가 때마침 시작하거나 그치게 되면 血滯가 공허하게 되어 그 틈을 타고 熱邪가 陷入하여 낮에는 덜하나 밤에

8) 張大源. 傷寒六書殺車槌法에 대한 研究. 東新大學校 大學院. 2003. pp.23-24.

陶華. 傷寒六書(殺車槌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124-125.

“柴胡雙解飲 柴胡 黃芩 半夏 甘草 人參 陳皮 芍藥. 卽小柴胡湯 本方自有加減法 治足少陽膽經受證 耳聾脇痛 寒熱 嘔而口苦 脈來弦數 屬半表半裏 宜和解 此經 膽無出入 有三禁 不可汗下吐也 止有小柴胡一湯 隨病加減 再無別湯. 本經證 小便不利者 加茯苓 本經嘔者 入薑汁 竹茹 脇痛 加青皮 痰多 加瓜蒌仁 貝母 寒熱似癰者 加桂枝 渴者 加天花粉 知母 齒燥無津液 加石膏 嗽者 加五味 金沸草 壞證 加鳖甲 本經證 心下飽悶 未經下者 非結胸 乃表邪傳至胸中 未入乎腑 證雖滿悶 尙爲在表 只消小柴胡加枳桔 未效 就以本方對小陷胸加枳桔 一服當然 其妙如神 秘之 不與俗人言之耳 虛煩類傷寒證 本方加竹葉炒粳米 本經與陽明合病 本方加葛根芍藥 如拾芥 婦人熱入血室 加當歸紅花 男子熱入血室 加生地黃 老婦人傷寒 無表證 其熱勝者 本方加大黃 甚者 加芒硝 水二鐘 薑一片 棗二枚 槌法 入生艾汁三匙 煎之溫服”

9) 임진석 옮김. 張仲景藥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7. pp.491-492.

10) 임진석 옮김. 張仲景藥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7. pp.115-117.

11) 임진석 옮김. 張仲景藥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7. pp.90-91.

12) 임진석 옮김. 張仲景藥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7. p.182.

13)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實熱證에 해당하는 脈象으로 추측함.

14) 朴贊國, 崔三燮. 溫病學(葉香巖 外感溫熱編). 서울. 성보사. 1989. pp.260-261. “如經水適來適斷 邪將陷血室 少陽傷寒言之詳悉 不必多贅 但數動與正傷寒不同 仲景立小柴胡湯 提出所陷熱邪 參棗扶胃氣 以衝脈隸屬陽明也 此與虛者爲合治 若熱邪陷入 與血相結者 當從陶氏小柴胡湯去參棗 加生地 桃仁 查肉 丹皮或犀角等”

심하여 학질처럼 寒熱이 생기고 煩渴 耳聾 譫語하는 것이 熱入血室이니 小柴胡湯에 生地黃을 加하여 치료한다.¹⁵⁾”고 하였는데, 附方으로 “‘散瘧’에는 陶氏小柴胡湯(柴胡 黃芩 半夏 甘草 生地黃 牡丹皮 桃仁 山楂肉 或犀角 枳殼)을 쓴다¹⁶⁾.”고 하여, 비록 몇 개의 寒涼한 약물을 가미하였지만 陶氏小柴胡湯이 熱入血室의 瘧血과 血結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 陶氏小柴胡湯은 少陽病에서 脈이 弦數하고 嘔證이 심한 鬱熱과 婦人傷寒 熱入血室 등의 血熱이 울체된 것에 효과가 있으므로 半表半裏의 少陽病에 울체된 열이 血分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陶華의 小柴胡湯 應用變方

陶華는 陶氏小柴胡湯의 原方인 柴胡雙解飲 외에도 『傷寒全生集·辨傷寒潮熱例第六』에서 小柴胡湯의 가감에 따른 여러 처방을 새로 명명하고 각각의 주치병증을 설명하고 있다. 그 가운데 몇몇의 처방은 후대 외감병을 변증론치 하는데 응용되었으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柴胡枳椇湯¹⁷⁾

小柴胡湯에서 人參 甘草를 빼고 枳殼 桔梗을 加한 것으로, 胸膈이 脹滿하여 답답하고 或 胸中痛 脇下痞痛을 치료한다.¹⁸⁾

本方에 대한 응용은 俞根初의 『通俗傷寒論·六經舌苔』에서 “少陽은 半表半裏를 주관하는데 半表에 치우친 것은 대부분 舌苔가 色이 白滑하며 或 舌尖이나 한쪽 변, 양쪽 변에 白苔가 끼며, 半裏에 치우

친 것은 대부분 舌質이 붉고 白苔가 끼는데 간혹 여러 색이 나타나기도 한다.¹⁹⁾”에 대한 何秀山의 주석에서 “半表半裏證에서는 白苔의 多少를 살펴야 하는데 白色이 많으면 表邪가 상대적으로 중하니 和解하면서 表證을 치료해야 한다. 張仲景의 柴胡桂薑湯과 俞氏의 柴胡枳椇湯은 모두 上焦를 통창시켜 津液이 내려갈 수 있게 하여 胃氣를 조화롭게 하여 脾胃가 풀리게 한다.²⁰⁾”고 하였고, 『通俗傷寒論·大傷寒』에서 “邪傳少陽經證. 寒熱往來 兩頭角痛 耳聾目眩 胸脅滿疼 舌苔白滑 或舌尖胎白 或單邊白 或兩邊白 脈右弦滑 左弦而浮大한 것은 邪氣가 腠理에 울체하였다가 上焦로 역상한 것으로 少陽經病이 半表證에 치우친 것이니 마땅히 和解하면서 表證을 치료해야 하니 柴胡枳椇湯을 쓴다.²¹⁾”고 하여 半表半裏證의 表證을 치유한다고 하였다.

또한 『通俗傷寒論·傷寒兼瘧』에서 “寒瘧은 먼저 蘇羌達表湯으로 發汗散寒시키고 이어서 輕劑인 柴胡枳椇湯으로 和解시킨다. 한두 劑를 복용한 후에도 寒熱이 중한 경우에는 重劑인 柴芩雙解湯으로 和解시킨다.²²⁾”라고 하여 傷寒에 寒瘧²³⁾을 겹쳤을 때

19) 俞根初. 通俗傷寒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p.23-24. “少陽半表半裏 偏於半表者 舌多胎色白滑 或舌尖胎白 或單邊白 或兩邊白 偏於半裏者 舌多紅而胎白 間現雜色.”

20) 俞根初. 通俗傷寒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p.23-24. “半表半裏證 但看白色之多少 白色多者 表邪尚多 宜和解兼表 張氏柴胡桂薑湯 俞氏柴胡枳椇湯 皆使上焦得通 津液得下 胃氣因和 則津液自汗而解.”

21) 俞根初. 通俗傷寒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209. “邪傳少陽經證. 寒熱往來 兩頭角痛 耳聾目眩 胸脅滿疼 舌苔白滑 或舌尖胎白 或單邊白 或兩邊白 脈右弦滑 左弦而浮大 此邪鬱腠理 逆於上焦 少陽經病偏於半表證也 法當和解兼表 柴胡枳椇湯主之.”

22) 俞根初. 通俗傷寒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252. “寒瘧 宜先與蘇羌達表湯 發汗散寒 繼與柴胡枳椇湯 輕劑以和解之 服一二劑後 瘧發寒熱並重者 則以柴芩雙解湯 重劑以和解之.”

23) 전통의학연구소. 동양의학대사전. 서울. 성보사. 2000. pp.2549-2550. “寒瘧. 黃帝內經에서 ‘먼저 오한하고 나서 열이 나고 등과 머리 및 목이 아프고 등골이 뻐뻐하며 하품과 신음을 하되 처음에는 오한이 나다가 극도에 달하면 덜덜 떨고 마지막에는 크게 열이 나면서 땀이 나고 풀어지되 오전에 발작하는 것이 태양경학(太陽經痛)이며, 눈이 아프고 코가 마르며 오한이 나 이가 딱딱 맞부딪치고 약간 오한이 나다가 곧 열이 나되 오후에 발작하는 것이 양명경학(陽明經痛)’이라고 하였다. 위의 두 항목이 바로 黃

사용하였다.

또한 『通俗傷寒論·夾痞傷寒』에서 “夾痞傷寒에서 胸膈이 답답하며 癰疾처럼 惡寒發熱하는데는 가벼운 경우 柴胡枳桔湯으로 重한 경우 柴胡陷胸湯을 쓴다. 만약 일찍이 下法을 쓰지 않았는데 생긴 痞症은 表邪가 上焦에만 있고 아직 胃部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니 비록 증상이 痞滿하다라도 表證이므로 柴胡枳桔湯으로 和解시키면 痞症을 치료할 수 있다.”²⁴⁾라고 하여 傷寒에 痞症을 겸하였을 때 사용하였다.

2) 柴胡陷胸湯

小柴胡湯에서 人參을 빼고 瓜蒌仁 桔梗 枳殼 黃連을 加한 것으로, 胸中痞滿 按之痛을 치료한다.²⁵⁾

본방에 대한 응용은 『傷寒全生集·辨傷寒潮熱例第六』에서 “胸中에 熱痰이 있어서 그득하고 답답하면서 아픈 것을 痰結이라하니 柴胡陷胸湯에 竹瀝 薑汁 조금을 加한다.”²⁶⁾라고 하여 變方 加減例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通俗傷寒論·表裏寒熱』에서 “惡寒이 끝나고 發熱하며 發熱이 끝나고 惡寒이 나는 것을 少陽病의 寒熱往來이니 증후는 目眩耳聾 口苦善嘔 膈滿脇痛이 나타나므로 和解시켜야하니 가벼운 경우 柴胡枳桔

湯, 重한 경우 柴胡陷胸湯을 쓴다²⁷⁾”라고 하여 寒熱往來 目眩耳聾 口苦善嘔 膈滿脇痛의 少陽病證 치료에 사용하였다.

또한 『傷寒全生集·辨傷寒潮熱例第六』 小柴胡湯 加減例에서 “胸中에 熱痰이 생겨 답답하면서 아픈 것을 痰結이라고 하니 柴胡陷胸湯에 竹瀝 薑汁을 조금 더하여 쓴다²⁸⁾”라고 하였고, 『傷寒全生集·辨傷寒胸膈滿例第二』에서 “傷寒에 胸膈心煩한 것은 柴胡陷胸湯을 쓴다²⁹⁾”라고 하여 傷寒證에 胸膈滿이 심한 경우 사용하였다.

또한 『通俗傷寒論·大傷寒』에서 “邪傳少陽府證. 비록 嘔吐는 그쳤지만 寒熱이 없어지지 않고 胸膈痛 膈滿悶이 생겨 小結胸이 된 것은 和解法에 開降法을 겸해야 하니 柴胡陷胸湯을 쓴다.”³⁰⁾라고 하여 少陽病 小結胸에 사용하였다.

또한 『通俗傷寒論·傷寒兼癰』에서 “濕癰³¹⁾에는 먼저 柴平湯으로 燥濕시키고 濕이 제거된 후 熱多寒少 胸膈滿痛하면 柴胡陷胸湯을 쓴다.”³²⁾라고 하여 濕癰으로 인한 胸膈痞滿에 사용하였다.

帝內經에서 寒邪가 營分을 손상시켰다 하여 寒癰이라 이름한 證이다. 한학의 원인은 여름에 暑熱에 손상되어 살갗의 안과 腸胃의 밖, 곧 營氣가 머무는 곳으로 들어간데다가 아침 저녁으로 한랭한 邪氣를 만나 찬 기운이 밖에서 속박함으로 인함인데 한낮의 양(陽)이 왕성한 때에 이르러도 暑熱이 발하여 퍼지지 못하고, 나중에 감수한 한사가 表에 가까이 있으므로 먼저 오한이 나고, 먼저 감수한 서열이 안에 있으므로 나중에 열이 나니 이것이 먼저 오한이 나고 나서 열이 나는 癰疾이 발작하는 까닭이다.”

24) 俞根初. 通俗傷寒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p.405-406. “夾痞傷寒. 若胸膈不寬 寒熱似癰者 輕則柴胡枳桔湯 重則柴胡陷胸湯...如不因下早而爲痞 乃表邪初傳上焦 尚未入胃 證雖痞滿 尙爲在表 只用柴胡枳桔湯 和解以寬痞氣可也.”

25)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亨. p.24. “若胸中痞滿 按之痛 去人參 加瓜蒌仁 桔梗 枳殼 黃連 名爲柴胡陷胸湯”

26)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亨. p.26.

27) 俞根初. 通俗傷寒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126. “惟寒已而熱 熱已而汗者 則爲少陽之寒熱往來 症多目眩耳聾 口苦善嘔 膈滿脇痛 必須上焦得通 津液得下 胃氣因和 津津汗出而解 謂之和解 輕者柴胡枳桔湯 重者柴胡陷胸湯選用.”

28)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亨. p.24. “胸中有熱痰 滿悶而痛 名曰痰結 治在柴胡陷胸湯 下加竹瀝 薑汁少許”

29)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利. p.5.

30) 俞根初. 通俗傷寒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p.209-210. “邪傳少陽府證. 嘔吐雖止 而寒熱未除 胸膈尚痛 膈滿而悶 已成小結胸者 治以和解兼開降法 柴胡陷胸湯主之.”

31) 전통의학연구소. 동양의학대사전. 서울. 성보사. 2000. p.1269. “濕癰은 바로 暑癰이다. 몸이 무겁고 아프며 팔 다리 마디에 변열이 나면서 저릿하고 욱지기가 나면서 더 부룩하고 흥겨부가 편하지 않은 것이 濕熱癰의 증상이다. 습열학의 원인에 대하여 內經에서는 가을에 땀을 내고 바람을 쐬거나 목욕하여 水氣가 살갗에 머물러 衛氣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위기는 낮에 陽分을 들고 밤에 陰分을 도는데 이 氣가 양을 얻어서는 밖으로 나가고 음을 얻어서는 안에 있는데 안팎이 서로 옮겨다니면서 癰이 날로 발작한다.”

32) 俞根初. 通俗傷寒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253. “濕癰 先與柴平湯燥其濕 濕去而熱多寒少 胸膈滿痛者 則以柴胡陷胸湯寬其胸.”

또한 『通俗傷寒論·夾痞傷寒』에서 “夾痞傷寒에서 胸膈이 답답하며 瘧疾처럼 惡寒發熱하는데는 가벼운 경우 柴胡枳桔湯으로 重한 경우 柴胡陷胸湯을 쓴다. 만약 誤下로 인한 痞症은 滿而不痛한 것이 胸膈에 있으니 柴胡陷胸湯을 쓴다.”³³⁾라고 하여 傷寒에서 誤下로 인한 痞症을 겸하였을 때 사용하였다.

3) 清熱生脈湯

小柴胡湯에 人參을 倍用하고 麥門冬 五味子를 加한 것으로, 脈이 弦虛하고 發熱 口渴하나 물을 마시고자 하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³⁴⁾

본방은 小柴胡湯에 生脈散을 合방한 것으로 그 응용은 『通俗傷寒論·夾癆傷寒(一名傷寒夾虛癆)』에서 “風寒邪에 감촉되면 形체를 손상할 뿐만아니라 안으로 脾胃에 영향을 주어 氣를 손상한다. … 外感病이 경미하나 心虛하면 歸脾湯, 脾虛하면 補中益氣湯, 肺虛하면 生脈散, 肝虛하면 逍遙散, 腎虛하면 地黃湯을 더하여 사용한다.”³⁵⁾라고 보았을 때 少陽病에 元氣가 虛하여 喘渴 脈弦虛한 것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4) 參胡清熱飲

小柴胡湯에 石膏 知母를 加한 것으로, 渴症이 심한 것을 치료한다.³⁶⁾

본방은 小柴胡湯에 石膏 知母를 加한 것인데 『傷寒全生集·辨傷寒過經不解例第二十五』人參竹葉湯의 가감법에 “혀와 입이 말라 물을 마시고자 하는 데는 石膏 知母를 加한다.”³⁷⁾라 하였고, 『傷寒全生集·用藥寒溫相得論 第五十一』“乾葛得天花粉 則止渴 石膏得知母 亦止渴”³⁸⁾라 하여 渴欲飲水를 목적으로 만든 처방이다. 小柴胡湯에는 人參 甘草이 있고, 거기에 石膏 知母를 더하면 白虎湯에 해당하니 실제로는 小柴胡湯과 白虎湯를 合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응용은 少陽病에 氣分熱이 심하여 舌乾口渴 渴欲飲水를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5) 滋陰清熱飲

小柴胡湯에 知母 黃柏 牡蠣粉을 加한 것으로, 房事過多나 或 夢遺로 失精하였거나 或 病을 앓아 正氣가 乾고하지 못하여 脈이 弦虛하고 發熱하며 양쪽 尺脈이 모두 浮하면서 無力한 것을 치료한다.³⁹⁾

본방은 小柴胡湯에 知母 黃柏 牡蠣粉을 加한 것인데, 知母 黃柏의 清熱滋陰하는 효능에 平肝潛陽 攝精斂汗하는 牡蠣⁴⁰⁾를 加하므로써 少陽病에 房勞過多로 인한 陰虛火動이 겸한 것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6) 參胡三白湯

小柴胡湯에 白芍 白朮 茯苓을 加한 것으로, 脈虛 發熱 口乾하고 或 大便이 무르며 胃가 弱하여 먹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⁴¹⁾

33) 俞根初. 通俗傷寒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p.405-406. “夾痞傷寒. 若胸膈不寬 寒熱似瘧者 輕則柴胡枳桔湯 重則柴胡陷胸湯…若但誤下成痞 滿而不痛者 在胸膈用柴胡陷胸湯.”

34)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亨. p.24. “若脈弦虛 發熱 口渴 不飲水者 人參倍用 加麥門冬 五味子 名爲清熱生脈湯”

35) 俞根初. 通俗傷寒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476. “外感風寒 是傷其形 內傷脾胃 乃傷其氣 … 若外感輕微而心虛者 主以歸脾湯 脾虛補中益氣湯 肺虛生脈散 肝虛逍遙散 腎虛地黃湯”

36)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亨. p.24. “渴甚 加石膏 知母 名爲參胡清熱飲”

37)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貞. p.39. “舌乾口渴 欲飲水者 加石膏 知母”

38)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元. p.65.

39)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亨. p.24. “若脈弦虛 發熱 或兩尺俱浮無力 此必先因房事 或夢遺走精 或病中還不固者 宜加知母 黃柏 牡蠣粉 名爲滋陰清熱飲”

40) 임진석 옮김. 張仲景藥物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7. pp.207-208.

41)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亨. p.25. “若脈虛

본방에 대한 응용은 『傷寒全生集·辨傷寒可下例 第四十五』에서 “下法을 쓴 후에 腹中虛軟하고 脈無力한 것은 虛證이니 參胡三白湯에 當歸身을 加하여 화해시킨다.”⁴²⁾”라고 하였고, 『傷寒全生集·辨傷寒過經不解例 第二十五』에서 “한 經이 지났는데 풀리지 않고 맥이 허약한 경우 下法을 써서는 안되니 參胡三白湯으로 加減하여 치료한다. 參胡三白湯: 人參 白茯苓 白芍 白朮 柴胡 生薑 大棗. 心煩不安에는 麥門冬 五味子를 加하고, 渴症에는 天花粉 知母를 加하고, 陰虛火動에는 黃柏 知母를 加하고, 走精⁴³⁾에는 牡蠣을 加하고, 心煩 口苦 痞滿에는 枳實 黃連를 加하고, 不眠에는 遠志 竹茹 辰砂를 加한다.”⁴⁴⁾”라고 하여 용법과 가감법을 자세하게 나열하였다.

또한 『傷寒全生集·辨傷寒瘥後勞復例 第三十六』에서 “病이 나인지 얼마 안된 후 血氣가 未平하고 餘熱이 다하지 않은데, 만약 물속에 흙으로 만든 墻壁을 오래 담가두면 무거울뿐더러 멀리 물이 빠져도 단단하지 않아 움직일 수 없듯이, 빗질을 하고 얼굴을 씻게 되면 傷神하게 된다. 과로로 재발한 것을 勞復이라하는데 아직 血氣가 虛하므로 조용히 편안하게 누워서 血氣를 조양해야 하는데 빨리 勞役하면 血氣가 비등하고 邪熱이 經絡으로 들어가서 發熱하게 된다. 脈浮하면 汗法으로 脈沈하면 下法으로 치료하고 汗下할 수 없으면 參胡三白湯으로 조리하면 흥건히 땀이 나면서 풀린다.”⁴⁵⁾”라고 하여 勞復證에

사용하였고, 『傷寒全生集·辨傷寒瘥後食復例 第三十七』에서 “病이 나인지 얼마 안된 후 많이 먹어 재발한 것을 食復이라한다. 病이 나인지 얼마 안된 후에는 穀氣를 조심해야하니 虛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傷寒病이 나오면 먼저 맑은 米飮을 마시고 그 다음 薄粥로 조금씩 부족하게 복용하고 肉食은 먹지 말아야 하는데, 나온 후 바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당일 저녁에 煩熱나게 되며 胃가 虛弱하면 소화시킬 수 없으니 穀氣를 없애야 낫는다. 食復으로 發熱 大便難 燥渴譫語 關脈實한 경우 枳實梔子湯에 大黃을 加하여 쓰고, 대변을 보더라도 熱은 풀리지 않는 경우에는 參胡三白湯에 加減하여 쓴다.”⁴⁶⁾”라고 하여 食復 熱症에 사용하였으며, 『傷寒全生集·辨傷寒瘥後女勞復例 第三十八』에서 “傷寒病에 남자가 병을 나인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女色을 범하여 재발한 것을 女勞復이라 한다. 증후는 頭重不舉 目中生花 腰背痛 小腹裏急絞痛하고 或 惡寒發熱이 심하며 或 陰火가 얼굴로 상충하여 벌겋게 달아오르고 心煩胸悶하므로 竹皮燒棍散 猥鼠糞을 쓰고 熱이 있으면 柴胡調赤衣散을 加하여 쓴다. 허약자는 參胡三白湯 調赤衣散을 쓴다.”⁴⁷⁾”라고 하여 女勞復에 사용하였다.

또한 『通俗傷寒論·傷寒勞復』에서 “傷寒勞復에 身熱 食少 無力한데 柴胡三白湯 (人參 茯苓 白芍 白朮 柴胡 薑棗煎服)으로 치료한다. 心煩不安에는. 麥門

發熱 口乾 或大便不實 胃弱不食者 加白芍 白朮 茯苓 名爲 參胡三白湯”

42)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元, p.61. “若下後 腹中虛軟脈無力者 此爲虛也 以參胡三白湯 加當歸身和之”

43) 走精黃: 삼십육황(三十六黃)의 하나. 『聖濟總錄』 제61 권에서 “환자가 몽롱한 상태에서 잠을 많이 자고 사지가 동통(疼痛)하며, 얼굴과 눈이 누렇게 혀가 자색을 띠며 심하면 혀가 갈라지면서 검은색을 띠는 것이 주정황(走精黃)인데, 약을 내복시키고 외용으로는 낙법(烙法)을 써야 한다.”라고 하였다.(趙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p.1120.)

44)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亨, pp.28-29. “若過經不解 人弱脈虛者 不可下 以參胡三白湯 加減治之 參胡三白湯 本方自有加減法 人參 白茯苓 白芍 白朮 柴胡 水薑 棗煎服 心煩不安者 加麥冬 五味 渴 加天花粉 知母 陰火動 加黃柏 知母 走精者 加牡蠣 心煩口苦痞滿 加枳實 黃連 不眠 加遠志竹茹辰砂”

45)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貞, pp.45-46. “病新瘥後 血氣未平復餘熱未盡 如水浸墻壁 水退土尙未堅不可動也 非但負重涉遠 雖梳頭洗面亦傷神也 若勞動再發 爲勞復 血氣尙虛 但當安臥守靜以養血氣設 或早晚勞役 爲血氣沸騰而邪熱遂還於經絡而發熱也 謂之遺熱脈浮者 以汗解之 脈沈者 以下解之 若不應汗下者 以參胡三白湯 加調理 但澀然汗出而解 或寒戰汗出而解”

46)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貞, pp.46-47. “新瘥後 多食而復發者 爲食復 緣新瘥不能勝穀氣 遂發虛熱也 大抵傷寒病後 只宜先進稀米飮次進薄粥 又宜少少與之 常令不足 不可盡意 諸般肉食不可食之 若瘥後病已解 但日暮微煩者 此食穀早或多食故也 胃虛弱而不能消穀食 宜損穀則愈 食後復發熱 大便難 燥渴譫語 關脈實者 用枳實梔子湯 加大黃下之 熱不解大便如常者 參胡三白湯加減治之”

47)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貞, p.47. “傷寒男子病新瘥 早犯女色而爲病復發者 名曰女勞復也 其候頭重不舉 目中生花 腰背痛 小腹裏急絞痛 或增寒發熱 或時陰火上衝頭面烘熱 心煩胸悶者 以竹皮燒棍散 猥鼠糞 若有熱加柴胡調赤衣散 人虛弱者 用參胡三白湯 調赤衣散”

冬·五味자를 加하고, 口渴에는 天花粉 知母를 加하고, 陰虛火動에는 黃柏 知母를 加하고, 走精에는 殿牡蠣를 加하고, 心煩口苦 痞滿에는 枳實 黃連를 加하고, 不眠에는 遠志 竹茹 辰砂를 加한다.⁴⁸⁾하여 勞復證에 加감법까지 그대로 사용하였다.

7) 柴苓湯

小柴胡湯에 四苓散을 합한 것으로 煩渴 脈浮弦而數 小便不利 大便滑泄을 치료한다.⁴⁹⁾

본방에 대한 응용은 『醫學入門·婦人小兒外科用藥賦拾遺』에서 “柴苓湯 即小柴胡湯 合四苓散. 退熱止瀉⁵⁰⁾”라고 하였고, 『世醫得效方·痰癰』에서 “小柴胡湯에 五苓散을 합하여 柴苓湯이라하니 傷風 傷暑의 瘧疾에 효과가 좋다.⁵¹⁾”라고 하여 학질에 사용하였다.

8) 春澤湯

柴苓湯에 炒黃連 白芍 黃柏을 加한 것으로 內熱 下利 口渴이 심한 狹熱利를 치료한다.⁵²⁾

春澤湯의 구성에 대해 『證治要訣類方』 제1권에서 “더위를 먹었을 때 설사는 멎었으나 입이 마른 병증

을 치료한다. 白朮 桂枝 豬苓 澤瀉 茯苓 人蔘을 물에 달여 복용한다.⁵³⁾”라고 하였고, 『奇效良方』 제5권에서 “더위를 먹고 열이 올라 갈증이 나서 물을 찾으며 소변이 시원하지 않은 병증을 치료한다. 澤瀉 豬苓 茯苓 白朮 桂心 柴胡 人蔘 麥門冬을 거칠게 갈아, 매회 7돈에 燈心 20줄기를 넣고 물에 달여 식간에 복용한다.⁵⁴⁾”라고 하였으며, 『新方新編·婦人門』에서 “임신한 부인이 腹脹하고 咳嗽한지 10여 일된 것을 치료한다. 橘皮 澤瀉·赤茯苓 乾薑 官桂 附子 人蔘 白朮 大腹皮 甘草을 달여 복용한다.⁵⁵⁾”라고 하여 각각 다르니 증후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9) 柴胡建中湯

小柴胡湯에서 黃芩을 빼고 炒芍藥 桂枝를 加한 것으로 腹痛 惡寒하는 것과 自利 惡風 發熱 腹痛하는 것을 치료한다.⁵⁶⁾

본방의 응용에 대하여 『傷寒全生集·辨傷寒心下悸例第十六』에서 “少陽病에 귀가 멀고 눈이 빨개며 가슴이 답답하여 어찌할 줄 모른다 따위를 겸한 것이 驚悸이니 小建中湯으로 치료하고 熱이 있으면 小柴胡湯으로 치료한다.⁵⁷⁾”라고 하여 小柴胡湯과 小建中湯의 차이점을 논하고 있다. 본방은 小柴胡湯에서 黃芩을 빼고 炒芍藥 桂枝를 加한 것으로 黃芩을 빼는 것에 대해 『傷寒全生集·辨傷寒潮熱例 第六』小柴胡湯 加감법에서 “腹中痛에는 黃芩을 빼고 炒白芍藥을 加한다.⁵⁸⁾”라고 하였고, “『本經疏證』에서 한기를 받아서 생긴 복통은 肝腎이 허한 아랫배 통증, 血虛

48) 俞根初. 通俗傷寒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551.

“傷寒勞復 若身熱食少無力 以柴胡三白湯 (人蔘 茯苓 白芍 白朮 柴胡 薑棗煎服) 心煩不安者 加麥冬 五味 口渴加花粉 知母 陰火動 加黃柏 知母 走精加殿牡蠣 心煩口苦痞滿 加枳實 黃連 不眠加遠志 竹茹 辰砂”

49)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亨. p.25. “若發煩渴 脈浮弦而數 小便不利 大便滑泄者 合四苓湯 名爲柴苓湯”

50) 李梴. 醫學入門. 南昌.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8. p.1289.

51) 危亦林. 世醫得效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 p.96. “小柴胡湯 與五苓散合和 名柴苓湯 治傷風 傷暑 瘧大效 每服薑三片 麥門冬二十粒去心 地骨皮少許 煎溫服”

52)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亨. p.25. “內熱 下利 口渴甚者 此名狹熱而利 加炒黃連 白芍 再加黃柏 名春澤湯”

53) 전통의학연구소. 동양의학대사전. 서울. 성보사. 2000. p.2318.

54) 전통의학연구소. 동양의학대사전. 서울. 성보사. 2000. p.2318.

55) 전통의학연구소. 동양의학대사전. 서울. 성보사. 2000. p.2318.

56)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亨. p.25. “若腹痛 惡寒 去黃芩 加炒芍藥 桂枝 名爲柴胡建中湯 自利 惡風 發熱 腹痛者 亦主之”

57)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利. p.68. “少陽 耳聾目赤 胸滿而煩妄 加吐利 則悸而驚 與小建中湯 有熱 小柴胡湯主治也.”

58)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亨. p.23.

腹痛이므로 黃芩을 금한다.⁵⁹⁾”라고 하여 그 이유를 제시하였다. 炒芍藥 桂枝를 加하면 비록 膠飴가 빠진 小建中湯이라 할 수 있으니 본방은 少陽病의 虛寒性 腹痛 下利를 치료한다.

10) 柴胡連枳湯

小柴胡湯에 枳實 黃連을 加한 것으로 心下痞滿 發熱을 치료하며, 痰이 있으면 瓜蒌 桔梗을 加한다.⁶⁰⁾

陶華는 『傷寒全生集·辨傷寒過經不解例第二十五』參胡三白湯 가감례에서 “心煩 口苦 痞滿에는 枳實 黃連을 加한다.⁶¹⁾”라 하였고, 『傷寒全生集·辨溫瘧例第五十三』에서 “傷寒壞病에서 아직 餘熱이 낫지 않아 陰陽脈이 모두 盛한데다 다시 寒邪에 감촉하면 변하여 溫瘧이 된다. … 痰이 많고 懣이 심한 경우 小柴胡湯에 二陳湯을 합하여 치료하는데 먹는 것이 적고 胃가 弱하면 白朮을 加하고 가슴이 답답하면 枳實 黃連을 加한다.⁶²⁾”라고 하여 心煩 口苦 痞滿에 枳實 黃連을 加하여 사용하였다. 柴胡連枳湯은 小柴胡湯에 枳實 黃連을 加한 것으로, 少陽病에 心煩 口苦 痞滿이 겸한 경우 사용 할 수 있으며, ‘痰이 있으면 瓜蒌 桔梗을 加한다.’는 柴胡連枳湯에 대한 가감례로 볼 수 있다.

11) 柴胡四物湯

小柴胡湯에 當歸 川芎 生地 芍藥을 加한 것으로 밤에 심한 血虛發熱 脈大無力한 것을 치료한다.⁶³⁾

본방은 劉完素가 『素問病機氣宜保命集·婦人胎產論第二十九』에서 “오래된 虛勞로 약간 寒熱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 川芎 熟地黃 當歸 芍藥 각 1.5냥, 柴胡 8돈 人參 黃芩 甘草 半夏麴 각 3돈을 거칠게 갈아 물에 달여 복용한다.⁶⁴⁾”라고 하여 虛勞發熱을 치료하기 위해 창방하였는데, 『通俗傷寒論·和解劑』에서 “柴胡四物湯 和解兼補血法 柴胡八分 仙半夏一錢 歸身一錢 生白芍二錢 條芩八分 清炙草六分 生地錢半 川芎七分.⁶⁵⁾”이라 하여 疎氣和血하므로 妊婦寒熱에 효과가 좋다고 하였다.

12) 柴胡養陰湯

小柴胡湯에서 半夏를 빼고 麥門冬 五味子 黃柏 知母를 加한 것으로 津液不足으로 인한 燥渴을 치료한다.⁶⁶⁾

柴胡養陰湯은 少陽病에 元氣가 虛하여 喘渴 脈弦 虛한 것을 치료하는 柴胡生脈湯과 少陽病에 房勞過多로 인한 陰虛火動이 겸한 것을 치료하는 滋陰清熱陰을 합방한 것에서 진액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半夏와 攝精斂汗하는 牡蠣를 뺀 것으로 진액부족으로 인해 虛火가 上炎하여 발생하는 口燥咽乾 咳嗽등을 치료한다.

13) 柴胡解毒湯

小柴胡湯에 黃連 黃柏 梔子를 加하여 달인 다음 辰砂末을 타서 조복하는 것으로 內熱이 심하여 말이 조리가 없고 心煩不得眠을 치료한다.⁶⁷⁾

59) 임진석 옮김. 張仲景藥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7. p.371.

60)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亨. p.25. “若心下痞滿而發熱者 加枳實 黃連 有痰 加瓜蒌 桔梗 名爲柴胡連枳湯”

61)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貞. p.39.

62)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貞. p.70. “傷寒壞病 前熱未除 其脈陰陽俱盛 重感寒邪 變爲溫瘧 … 痰多懣甚者 小柴胡合二陳湯 食少胃弱 加白朮 心滿者 加枳實黃連”

63)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亨. p.25. “若血虛發熱 至夜尤甚 脈大無力 加當歸 川芎 生地 芍藥 名柴胡四物湯”

64) 劉完素. 河間醫集(素問病機氣宜保命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p.498.

65) 俞根初. 通俗傷寒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66.

66)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亨. p.25. “若燥渴 津液不足 去半夏 加麥門冬 五味 黃柏 知母 名爲柴胡養陰湯”

柴胡解毒湯은 小柴胡湯에 黃連 黃柏 梔子를 加하여 달인 다음 辰砂末을 타서 조복하는 것으로 陶華가 小柴胡湯과 黃連解毒湯을 합방하여 가감한 것이다. 黃連 黃柏 梔子로 上中下 三焦의 大熱을 蕩滌하고 重鎮降逆 淸熱解毒⁶⁸⁾하는 辰砂는 內熱로 인한 心煩을 진정시키므로 本方은 少陽病에 內熱이 심하여 발생하는 心煩 不得眠을 치료한다.

14) 柴葛解肌湯

小柴胡湯에 葛根 芍藥을 加한 것으로 少陽 陽明이 合病하여 發熱하며 脈이 弦長한 것을 치료한다.⁶⁹⁾

본방에 대한 응용은 『殺車槌法·秘用三十七方就注三十七槌法』에서 “柴葛解肌湯. 足陽明胃經이 邪氣를 받은 證을 치료하니 目痛 鼻乾 不眠 頭疼眼眶痛하고 脈이 微洪한 것은 마땅히 解肌해야하니 陽明經病에 속하기 때문이다. 柴胡 乾葛 甘草 黃芩 芍藥 羌活 白芷 桔梗. 陽明病에서 땀이 나지 않고 惡寒이 심한 경우에는 黃芩을 빼고 麻黃을 加해서 쓰는데 겨울에는 많이 쓰고 봄에는 적게 쓰며, 여름과 가을에는 쓰지 않고 蘇葉을 加하여 쓴다. 물 두 병에 생강 세 쪽 대추 2개를 넣고 달여야 하니 槌法은 石膏가루한 돈을 加하고 달여서 熱服하는 것이다.”⁷⁰⁾하고 하였는데 羌活 白芷 桔梗 石膏가 더 들어가 있다.

또한 『醫學入門·汗吐下瀉和解溫補總方』에서 “陶

氏解肌湯. 葛根解肌湯에서 麻黃 桂枝를 去하고 柴胡 羌活 白芷 桔梗 石膏 升麻를 加하여 生薑을 넣고 달여 복용한다. 陽明病이 장차 少陽證으로 전변하려는 것을 치료한다. 無汗 惡寒이 심하면 黃芩을 去하고 麻黃을 加하며 夏秋에는 蘇葉으로 바꾼다.”⁷¹⁾라고 하여 柴葛解肌湯에 升麻, 石膏를 加하고 처방명을 陶氏解肌湯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15) 參胡石膏湯

小柴胡湯에 白虎湯을 합한 것으로 脈洪數 惡熱 譫語하며 大便이 굳고 안색이 붉으며 煩渴하여 자주 물을 마시고자 하는 것을 치료한다. 大便實에는 半夏를 빼고 大黃을 加하여 攻下시키고, 暑邪를 겸한 것은 黃連 香薷를 加하고 半夏를 빼다.”⁷²⁾

陶華는 『傷寒瑣言·治傷寒用藥大略』에서 “中暑로 渴症이 있는 경우 小柴胡石膏湯 人蔘白虎湯을 쓰니 渴症의 微甚을 살펴서 쓰면 효과가 있다.”⁷³⁾라고 하였으니 비록 처방의 내용이 없으나 小柴胡湯에 石膏를 加한 것으로 보인다.

본방의 응용은 『醫學入門·傷寒用藥賦』에서 “柴胡石膏湯. 柴胡二錢 石膏四錢 甘草一錢 生薑을 넣고 달여서 복용한다. 孕婦가 暑邪에 상하여 惡寒頭痛 壯熱躁悶 四肢煩疼 背項拘急 口幹舌燥한 것을 치료한다. 氣虛에는 人蔘을 加한다.”⁷⁴⁾라고 하여 柴胡石膏湯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이 조금 다르다. 또한 『

67)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亨. p.25. “若內熱甚 錯語 心煩不得眠 加黃連 黃柏 梔子 調辰砂末 名爲柴胡解毒湯”

68) 임진식 옮김. 張仲景藥物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7. p.169.

69)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亨. p.25. “若脈弦長 少陽陽明合病發熱者 加葛根 芍藥 名爲柴葛解肌湯”

70) 陶華. 傷寒六書(殺車槌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p.123-124. “柴葛解肌湯. 治足陽明胃經受證 目疼鼻乾 不眠 頭疼眼眶痛 脈來微洪 宜解肌 屬陽明經病 其正陽明病別有治法 柴胡 乾葛 甘草 黃芩 芍藥 羌活 白芷 桔梗 本經無汗 惡寒甚者 去黃芩 加麻黃 冬月宜加 春夏少 夏秋去之 加蘇葉 水二鐘 薑三片棗二枚 槌法 加石膏末一錢 煎之熱服”

71) 李梴. 醫學入門. 南昌.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8. p.680. “陶氏解肌湯. 即葛根解肌湯 去麻 桂 加柴胡 羌活 白芷 桔梗 石膏 升麻 薑煎服. 治陽明病將傳少陽等證. 如無汗惡寒甚者 去芩 加麻黃 夏秋換蘇葉”

72)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亨. pp.25-26. “若脈洪數 惡熱內實 譫語面赤 煩渴 飲水不止者 合白虎湯 名爲參胡石膏湯 大便實 加大黃 去半夏 攻之 若夾暑 加黃連 香薷 去半夏”

73) 陶華. 傷寒六書(傷寒瑣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8.

74) 李梴. 醫學入門. 南昌.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8. pp.673-674. “柴胡石膏湯 柴胡二錢 石膏四錢 甘草一錢 薑煎服 治孕婦傷暑 惡寒頭痛 壯熱躁悶 四肢煩疼 背項拘急 口乾舌燥 如氣虛 加人蔘”

通俗傷寒論·和解劑』에 “柴胡白虎湯 和解偏重清降法 俞氏經驗方 川柴胡 一錢 生石膏 八錢 研 天花粉 三錢 生粳米 三錢 青子芩 錢半 知母 四錢 生甘草 八分 鮮 荷葉 一片⁷⁵⁾”라고 하였으니 처방명은 비록 다르나 처방과 내용이 같다고 볼 수 있다.

III. 고찰

『醫學入門』의 傷寒 관련 부분은 陶華의 外感病에 대한 이론 및 처방을 중심으로 요약 논술하고 있다. 그 안에는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창방한 것들을 모아 기존의 처방명 앞에 ‘陶氏’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28 개가 있는데, 대부분 기본방 못지않게 임상적 효과가 좋아 그 활용가치가 높은 것들이다.

陶氏小柴胡湯의 淵源과 효용에 대하여『醫學入門·汗吐下滲和解溫補總方』和解에 있는 陶氏小柴胡湯은 傷寒論의 小柴胡湯에 陳皮 芍藥 川芎을 加하여 달인 후 생즙씩 세 숟가락을 타서 복용하는 것으로, 그 淵源은 『殺車槌法』의 小柴胡湯 變方인 ‘柴胡雙解飲’이라 할 수 있다. 李梴은 본방의 효능에 대하여 ‘傷寒五六日 胸滿 心煩喜嘔 身熱 心中咳逆 不欲食 或嘔 或不嘔者 一可服, 寒熱往來而心悸者 二可服, 脅下滿硬而痛 耳聾胸痞 小便不利 或渴 或不渴者 三可服, 發潮熱者 四可服, 瘥後發熱者 五可服.’이라 한 小柴胡湯의 治法과 加減法이 같다고 하였다. 하지만 도화는 柴胡雙解飲을 足少陽膽經이 邪氣를 받아 귀가 멀고 옆구리가 아프며 寒熱이 왕래하고 嘔證이 있으면서 입이 쓰고 脈이 弦數한 것을 치료한다고 하였고, 小柴胡湯에 理氣調中 降逆止嘔 燥濕化痰하는 陳皮와 斂陰和營 通利血脈 緩急止痛 安胎止漏하는 芍藥을 加하고 槌法으로 溫經止血 調經安胎 散寒止痛하는 艾葉을 生用함으로써 少陽病에 血脈이 阻滯된 濕痰으로 발생한 내열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보았다. 그러므로 陶氏小柴胡湯은 少陽病에서 脈이 弦數하고 嘔證이 심한 鬱熱과 婦人傷寒 熱入血室 등의 血熱이 울체된 것에 효과가 있으므로 半表半裏에 울체된 열이 血分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陶華의 小柴胡湯 應用變方에 대하여 柴胡雙解飲 외에도 『傷寒全生集·辨傷寒潮熱例第六』에서 小柴胡湯의 가감에 따른 여러 처방을 새로 명명하고 각각의 주치병증을 설명하였다.

柴胡枳桔湯은 小柴胡湯에서 따뜻한 성질의 人參 甘草를 빼고 胸脇滿의 要藥인 枳殼 桔梗을 加한 것으로, 少陽病 半表半裏證에 上焦에 熱이 울체되어 津液이 내려가지 못하여 나타나는 少陽病 表證과 傷寒에 寒瘧이나 痞證이 겸한 것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柴胡陷胸湯은 小柴胡湯에서 人參을 빼고 瓜蒌仁 桔梗 枳殼 黃連을 加한 것으로 小柴胡湯에 小陷胸湯을 가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에서 논한 柴胡枳桔湯에 上焦에 熱痰이 울체된 것을 치료하기 위해 黃連 瓜蒌仁을 加한 것이므로 효능은 少陽病의 熱多 寒少證과 小結胸, 傷寒病에 濕痰을 겸하고 胸脇滿이 심한 것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清熱生脈湯은 小柴胡湯에 生脈散을 합방한 것으로 少陽病에 元氣가 虛하여 喘渴 脈弦虛한 것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參胡清熱飲은 小柴胡湯에 白虎湯을 합방한 것으로, 少陽病에 氣分熱이 심하여 舌乾口燥 渴欲飲水를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滋陰清熱飲은 小柴胡湯에 知母 黃柏 牡蠣粉을 加한 것으로, 知母 黃柏의 清熱滋陰하는 효능에 平肝 潛陽 攝精斂汗하는 牡蠣를 加하므로써 少陽病에 房勞過多로 인한 陰虛火動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參胡三白湯은 小柴胡湯에 白芍 白朮 茯苓을 加한 것으로 小柴胡湯과 四君子湯을 합하고 和陰布陽하는 白芍藥을 加한 것이니, 少陽病에 誤下로 인한 虛證이나 傷寒病 勞復證과 같은 正氣虛弱症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柴芩湯은 小柴胡湯에 四苓散을 합한 것으로 少陽病에 水飲이 不利하여 발생하는 煩渴 脈浮弦而數 小便不利 大便滑泄 및 瘧疾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春澤湯은 柴芩湯에 炒黃連 白芍 黃柏을 加한 것인데, 약물구성면에서 『證治要訣類方』은 白朮 桂枝 豬苓 澤瀉 茯苓 人蔘으로, 『奇效良方』은 澤瀉 豬苓 茯苓 白朮 桂心 柴胡 人參 麥門冬 燈心으로 서로 약

75) 俞根初. 通俗傷寒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p.64.

간 다르나 효능에서는 모두 내부에 열이 울체하여口渴하면서水濕이不利하여 나타나는下利를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柴胡建中湯은 小柴胡湯에서 黃芩을 빼고 炒芍藥 桂枝를 加한 것으로 小柴胡湯에 小建中湯을 합하고 虛寒腹痛을 염려하여 黃芩을 뺀 것이니, 傷寒의 虛寒性 腹痛 下利를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柴胡連枳湯은 小柴胡湯에 枳實 黃連을 加한 것으로, 少陽病에 上焦熱이 심하여 心煩 口苦 痞滿이 겸한 것을 치료하는데 사용하며, 熱로 인해 痰이 생기면 瓜蒌 桔梗을 加하여 사용한다.

柴胡四物湯은 小柴胡湯에 四物湯(熟地黃 대신 生地黃 사용)을 합방한 것으로 血虛發熱 脈大無力한 것을 치료하며 疎氣和血하므로 妊婦寒熱에 효과가 좋다.

柴胡養陰湯은 小柴胡湯에서 半夏를 빼고 麥門冬 五味子 黃柏 知母를 加한 것으로, 柴胡生脈湯과 滋陰清熱陰을 합방한 것에서 津액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半夏와 攝精斂汗하는 牡蠣를 뺀 것으로 津액부족으로 인해 虛火가 上炎하여 발생하는 口燥咽乾 咳嗽등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胡解毒湯은 小柴胡湯에 黃連 黃柏 梔子를 加하여 달인 다음 辰砂末을 타서 조복하는 것으로 小柴胡湯과 黃連解毒湯을 합방하여 가감한 것이니, 少陽病에 內熱이 심하여 발생하는 心煩 不得眠을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柴葛解肌湯은 『傷寒全生集』에서는 小柴胡湯에 葛根 芍藥을 加한 것이라 하였고, 『殺車槌法』에서는 小柴胡湯에 葛根 芍藥 羌活 白芷 桔梗을 加하고 槌法으로 石膏가루 한 돈을 加하고 달여서 熱服하는 것이라 하였다. 『醫學入門』에서는 『傷寒全生集』의 柴葛解肌湯에 升麻, 石膏를 加하고 처방명을 陶氏解肌湯이라 하였다. 『傷寒全生集』에 수록된 柴葛解肌湯의 효능은 少陽 陽明이 合病하여 發熱하며 脈이 弦長한 것을 치료하는 것이고, 『殺車槌法』에 수록된 柴葛解肌湯은 足陽明胃經의 目痛 鼻乾 不眠 頭疼 眼眶痛 脈微洪한 것을 치료한다. 또한 『醫學入門』에 수록된 陶氏解肌湯은 陽明病이 장차 少陽證으로 전환하려는 것을 치료한다.

參胡石膏湯(柴胡石膏湯)은 小柴胡湯에 石膏를 加한 것으로 少陽病 半表半裏證에 裏熱證이 겸하여 脈洪數 惡熱 譫語 大便硬 譫語面赤 煩渴 飲水不止를 치료하는데 사용한다.

이상의 小柴胡湯의 가감법을 기초로 한 應用變方은 柴胡建中湯을 제외한 대부분 少陽病의 多寒少證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和解劑의 증후에 따른 새로운 치료처방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위에서 소개한 처방들의 구성을 정리하여 비교하면 Table 1.과 같다.

IV. 결 론

『醫學入門』의 傷寒에 대한 이론과 처방을 바탕으로 陶氏小柴胡湯에 대한 淵源 활용 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陶華의 증후에 따른 小柴胡湯 응용법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醫學入門』 和解에 나오는 陶氏小柴胡湯의 淵源은 陶華의 『殺車槌法』 小柴胡湯 變方인 ‘柴胡雙解飲’이며, 그 효능은 少陽病 半表半裏에 울체된 열이 血分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치료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2. 小柴胡湯의 應用變方에서 柴胡建中湯을 제외한 柴胡陷胸湯, 柴胡四物湯, 柴葛解肌湯 등의 대부분의 처방은 少陽病의 熱多寒少證에 대한 치료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李梴이 和解에 대해 ‘和’는 內熱을 조화롭게 하는 것, ‘解’는 外邪를 풀어내는 것이라는 해석에 영향을 주었으며, 和解劑의 증후에 따른 새로운 치료처방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3. 본 陶氏小柴胡湯에 대한 연구가 小柴胡湯과 應用變方의 임상적 활용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陶氏’ 처방 전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able 1. Varied forms of Dossisosihotang and its Constituent herbs

	柴胡	黃芩	人參	半夏	甘草	陳皮	芍藥	川芎	枳殼	桔梗	瓜蒌仁	黃連	麥門冬	五味子	石膏	知母	黃柏	牡蠣粉	白芍	白朮	茯苓	澤瀉	豬苓	桂枝	枳實	當歸	生地	梔子	葛根	石膏
小柴胡湯	○	○	○	○	○																									
柴胡雙解飲	○	○	○	○	○	○	○																							
陶氏小柴胡湯	○	○	○	○	○	○	○	○																						
柴胡枳梗湯	○	○		○		○			○	○																				
柴胡陷胸湯	○	○		○	○				○	○	○	○																		
清熱生脈湯	○	○	○	○	○								○	○																
參胡清熱飲	○	○	○	○	○										○	○														
滋陰清熱飲	○	○	○	○	○											○	○	○												
參胡三白湯	○	○	○	○	○													○	○	○										
柴苓湯	○	○	○	○	○															○	○	○	○							
春澤湯	○	○	○	○	○							○					○	○	○	○	○	○								
柴胡建中湯	○		○	○	○		○																	○						
柴胡連枳湯	○	○	○	○	○							○													○					
柴胡四物湯	○	○	○	○	○		○	○																		○	○			
柴胡養陰湯	○	○	○		○							○	○		○	○														
柴胡解毒湯	○	○	○	○	○						○					○												○		
柴葛解肌湯	○	○	○	○	○													○												○
參胡石膏湯	○	○	○	○	○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5학년도 동신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References

- Li C. Yixuerumen. Beijing. Renminweishengchubanshe. 1988.
李梴. 醫學入門.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 Tao Y. Shānghánliùshū(Shāchēchuífǎ). Beijing. Renminweishengchubanshe. 1990.
陶華. 傷寒六書(殺車槌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 Lim JS trans.. Jangjungkyeong Herbology. Seoul. Daesungeuihaksa. 2007.
임진석 옮김. 張仲景藥學. 서울. 대성의학사.

2007.

- Park CK, Choi SS. Wenbingxué(Yèxiāngyán Wàigǎnwēnrèbiān). Seoul. Sungbosa. 1989.
朴贊國, 崔三燮. 溫病學(葉香巖 外感溫熱編). 서울. 성보사. 1989.
- Tao Y. Shānghánquánshēngjī. Bonajangpan photoprint. Text Hyeong.
陶華. 傷寒全生集. 本衙藏版 影印本. 卷亨.
- Yiu GC. Tōngsúshānghánlun. Beijing. ZhōngyīgūjīChūbǎnshè. 2002.
俞根初. 通俗傷寒論.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2.
- Compilation of Traditional Medicine Institute. Oriental Medicine Dictionary. Seoul. Sungbosa. 2000.
전통의학연구소. 동양의학대사전. 서울. 성보

- 사. 2000.
8. Zhào J. Shèngjizǒnglù. Běijīng. RénmínwèishēngChūbǎnshè. 1982.
趙佶. 聖濟總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9. Wēi YL. Shiyìdexiàofāng. Shànghǎi. ShànghǎikēxuéjìshùChūbǎnshè. 1964.
危亦林. 世醫得效方.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64.
 10. Liú WS. Héjiànyìjī (Sùwènbìngjī qiyìbǎomìngjī). Běijīng. Rénmínwèishēng Chūbǎnshè. 1988.
劉完素. 河澗醫集(素問病機氣宜保命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8.
 11. Jang DW. A Research on the Shānghánliùshū(傷寒六書)-Shāchēchuífǎ(殺車槌法). Graduate School Dong Shin University. 2003.
張大源. 傷寒六書殺車槌法에 대한 研究. 東新大學校 大學院. 2003.